

이태원 참사 애도...경제계 할러윈 행사 줄줄이 취소

광주신세계·롯데백화점 광주점 포스터·연출 소품·조형물 철거 온라인몰 기획전·상품 판매 중단 외식·가전사 할러윈 마케팅 취소

'MZ세대의 명절'이라고 불리며 '대목'으로 꼽히는 할러윈 데이(10월31일)를 맞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여왔던 경제계가 이태원 참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서둘러 행사를 취소하고 나섰다.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 할러윈 시즌이라는 점에서 관련 상품을 앞다퉀 출시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마련했지만, 예상치 못했던 대형 참사에 관련 상품 폐기 및 판매 중단 등 발빠른 조치가 돌입했다. 광주신세계는 30일 '자체 할러윈 데이' 행사가 없어 관련 포스터나 연출 소품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각 매장 내 브랜드별로 설치한 장식물 등을 파악해 철거를 추진 중"이라며 "매장 내 장식과 매장별 이벤트 등은 브랜드의 권한이지만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각 브랜드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출입문 등에 부착된 할러윈 데이 관련 행사 포스터와 조형물 등 철거가 나섰고, 매장 내 브랜드별로 설치한 장식물 등도 제거했다. 이밖에 롯데쇼핑은 롯데백스 광주상무점과 롯데마트 남약점 등 광주·전남 9개 대형마트 등 점포별로 추진할 예정이었던 관련 행사나 이벤트를 모두 취소하고, 점포 내 고지물을 제거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할러윈 관련 연출물을 제거하고, 기획했던 프로모션 역시 모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이어 편의점업계도 이번 사태에 기획전과 상품을 거두고 있다. 이날 편의점 CU는 할러윈 코스튬과 파티용품 등을 무료 배

송하는 기획전을 중단했고, GS25는 자체 앱에서 진행하던 할러윈 상품 판매를 중지했다. 유통업계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할러윈 데이'를 맞아 특수를 노려왔으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할러윈 초콜릿 행사를 준비했던 온라인몰 11번가는 참사 소식을 접하자 즉각 상품 판매를 중단, 쿠팡도 31일까지 예정된 '해피 할러윈 기획전'을 이날 오전 중단하고 관련 상품 노출을 막아 놓은 상태다. 외식·식품업계도 속속 할러윈 행사 취소에 동참하고 있다. 우선 매장 내 할러윈 관련 소품과 장식을 설치하고 프로모션 음료를 판매하던 스타벅스도 이날 할러윈 음료 푸드 등 프로모션을 이날부터 조기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오는 1일까지 할러윈 프로모션 관련 음료와 푸드 상품, MD(기획 상품) 판매하

고, 할러윈을 기념하기 위해 매장에 장식과 게시물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모두 취소했다. 스타벅스 앱 초기 화면도 기존 세이렌 로고 화면으로 바꿨다. 도미노피자도 할러윈 한정판 메뉴인 '포켓몬 몬스터볼 피자' 마케팅을 중단했다. 가전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날 개최 예정이었던 비스포크 큐커 '할러윈 미식 페스티벌'을 급히 취소했고, '스마트싱싱 일상도감'이라는 광고의 '고스트(ghost) 편' 노출도 중단했다. LG전자도 'ThinQ 발탁출 카페 시즌2' 할러윈 이벤트를 전면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할러윈 축제를 진행 중이던 용인 에버랜드를 비롯해 서울 롯데월드 등 테마파크와 호텔업계도 관련 행사 전면 중단에 나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입은 이번 참사에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특히 모든 업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유도하는 행사도 지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전 빅스포

11월2~4일 DJ센터서 국내외 233개사 참여

한국전력공사는 오는 11월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 2022)에 국내외 233개사가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극복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잡았다. 첫날 오전 10시 열리는 개막식에는 1000명의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승일 한전 사장의 개회사와 미국전력연구소(EPR)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 등이 이어진다. 세계 최초 에너지 특화 대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윤의준 총장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을 설명하고 켄텍이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현황을 소개한다. 개막날 오후 8시에는 '희망·사랑 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선착순 무료 사전 예매를 전화(070-4323-2481)를 통해 할 수 있다. 빅스포 2022 행사 기간 전문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전시회, 발명특허대전 등이 진행된다. 해외 300명을 포함한 2만5000명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관람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신기술관이 처음 운영된다. 신기술전시회에는 현대일렉트릭과 LS전선, 효성중공업(주) 등 국내 대기업과 HITACHI, 오라클, 3M 등 국제 기업, 40여 개의 혁신적 스타트업 등 총 233개 기업이 참여한다. 한전과 기술보증기금, 광주·전남 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하는 '에너지 기술거래 장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방향 기술거래가 이뤄진다. 전국 100여 개의 전력·에너지 분야 기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2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업무협약 체결이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면담 현대차 체코공장 전동화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체코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총리를 만나 현대차 체코공장의 전동화 체제 전환에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사진>

3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총리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체코는 올해 하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으며, 한-체코 양국은 1990년 수교를 맺은 후 2015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며 32년 간 교류와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왔다. 현재 체코에는 현대차를 비롯해 5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최근 전기차와 청정에너지 등 미래산업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범위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정의선 회장은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게 체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대차 체코공장이 체코 자동차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정의선 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 주제와 목표,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로서 한국과 부산의 경쟁력을 설명하며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정의선 회장은 "부산세계박람회가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삶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회장은 "한국은 인구가 직면한 위기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라며 친환경 모빌리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정 회장은 유럽 전기차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주목하고, 체코 자동차산업과 현대차 체코공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체코공장의 증장기 전동화 체제 전환 계획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전기차 생산 확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대차그룹의 고품질의 전기차 공급과 국내외 충전 인프라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의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현대차 체코공장에서는 생산하는 코나 일렉트릭 등 전동화 모델의 도매판매가 올 9월까지 8만7045대로 전년 대비 38.1% 늘었다. 체코공장은 2030년 현대차그룹의 유럽시장 증장기 전기차 판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2035년 유럽에서 100% 전동화 전환 달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광주은행 독서골든벨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가운데)이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 KJ상생마루에 신안임자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을 초대해 진행한 독서골든벨 '광주은행 리츠 갯생, 독서킹!' 대회에서 금융·경제 상식 문제를 푼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청소년과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박물관', '광주은행 뱅킹스' 등 경제교육을 벌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수자원공사, 장흥 체육인재개발원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 협약

한국수자원공사가 장흥에 짓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에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와 장흥군, 대한체육회는 지난 28일 장흥군청에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장흥에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을 건립하고 있다. 총사업비 436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 완공

할 방침이다. 연면적 1만1000㎡ 규모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수자원공사는 장흥군과 협력해 체육인재개발원 건립사업에 친환경 수열 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열에너지는 수온이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특성을 활용해 물을 열원으로 냉난방하는 방식을 말한다. 광역원수의 오염이나 손실 없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롯데타워, 한강홍수통제소 등이 수열에너지를 적용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남 남부권 광역 상수도 원수관로를 활용해 수열에너지를 공급하면 전력사용량을 연간 520MWh 절감할 수 있으며 소나무를 2만 그루 심는 온실가스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식 수자원공사 영·선유역본부장은 "국내 신재생 에너지 1위 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열, 태양광, 수력에너지 등을 활용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백년대계를 이어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실시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 찾은 이재용 "협력회사 잘 되어야 삼성도 잘 된다"

평동산단 협력회사 '디케이' 방문 회장 승진 첫 행보 '사회와의 동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것이라는 광주일보 보도(2022년10월28일자 2면)와 관련, 이 회장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방문했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회사 '디케이(DK)'를 방문했다.

1993년 창립한 광주지역 기업인 디케이는 1994년부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와 거래해 올해 28년간 함께한 협력회사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냉장고와 에어컨, 건조기, 세탁기 등 생활가전사업부에 철반 가공품 등을 납품하고 있다.

이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한 뒤 첫 공식 행보로 광주 협력사 방문을 택한 것은 '사회와의 동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그는 2019년 삼성전자 창립 50주년 당시에도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메시지를 내놓는 등 동행 철학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디케이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지난 28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에 소재한 협력회사 '디케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협력회사가 잘 되어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디케이의 매출은 7억5000만원, 직원 10여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매출 2152억원, 직원 773명으로 각각 287배, 77배 성장했다.

삼성전자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광주 협력회사를 방문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는 사업보국을 잇는 '미래동행' 철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이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담대·전세·신용대출

13년만에 금리 7%시대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등 종류에 상관없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모두 7%를 넘어 서면서, 약 13년 만에 본격적으로 '7%대 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28일 기준 연 4.970~7.499% 수준이다.

한 달 전인 9월 30일(4.510~6.813%)과 비교해 상단이 0.460%포인트, 하단이 0.686%포인트 나 높아졌다.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지난 17일 2.960%에서 3.400%로 0.440%포인트 뛰었기 때문이다. 2012년 7월(3.400%)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도 연 4.730~7.141%에서 연 5.360~7.431%로 올랐다.

변동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단이 7%를 넘었을 뿐 아니라, 특히 하단이 0.630%포인트 급등했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의 지표로 주로 사용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미국과 한국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전망 등의 영향으로 최근 계속 오름세를 맞았다.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7%대를 돌파했다.

한 달 사이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5.108~6.810%에서 5.953~7.350%로 뛰었다. 하단의 인상 폭은 0.845%포인트에 이른다.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22%포인트 치솟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03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3	6	19	36	39	26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1,585,019,672	16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1,585,019,672	80
3	5개 숫자일치					1,524,241	2,77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0,403
5	3개 숫자일치					5,000	2,359,126